



열목어 서식지.



주목.



노루삼.



정암사 수마노탑.



멧팔랑나비.



쥐오줌풀.

# 폐광서 쏟아지는 붉은 빛 폐갱수 수질 오염 주범

생활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79) 태백산 정암사



산작약.

그동안 사찰순례를 찾아다니면서 새삼 느낀 것은 옛 수행자들이 나무와 숲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삼국시대부터 여러 나라를 드나들면서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배롱나무, 파초, 불두화, 차나무 등 우리 풍토에 맞는 나무들을 들여와 숲의 다양성을 이루어놓았다.

옛 수행자들의 숲사랑 흔적은 현존하는 노거수의 삼목설화(榑木說話)에도 남아있다. 정선 정암사의 주목 설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목설화로, 신라 자장율사가 짓고 다니다가 꽃이두었다고 전한다. 정암사는 자장율사가 말년에 창건한 마지막 적멸보궁이다. <삼국유사>의 창건설화에 따르면 율사가 갈반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자 큰 구렁이가 나무 밑에 포아리를 틀고 있는 자리에 석남원오늘의 정암사를 짓고 문수보살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납부한 거사로 변장한 문수보살이 칠포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메고 찾아왔으나 자장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문수보살이 '아상(俄相)을 가진 자가 어찌 나를 볼 수 있겠는가'하고 사라져버렸

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듣고 뒤쫓아 갔으나 끝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진하고 말았다. 영월을 지나 사북 고한으로 들어서면 정암사 앞을 지나온 지장천(地藏川)과 만난다. 지장천은 예전에 열목어와 어름치가 오르내리던 맑고 찬 하천이었으나, 1970년대에 이 지역에 대규모 탄광개발이 진행되면서 순식간에 탁류가 되고 말았다.

자장율사가 문수보살과 만나기로 했던 갈반지(葛蟠地=갈래) 삼거리로 지나 산모퉁이를 돌아서면 오른쪽 산 중턱에 공룡 같은 삼척탄좌 폐광이 가로 막는다. 이 폐광에서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하루에 2000톤씩 붉은 폐갱수가 쏟아져 나온다.

정선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지장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화한다고 하지만, 폐갱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형만 자연형으로 복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삼척탄좌를 지나면 지장천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물이 갑자기 맑아진다. 돌과 바위들도 원래의 희멀건 색깔을 회복하고 있다. 상류 쪽에 동원탄좌에서 붉은 폐갱수가 나오고 있지만, 3킬로미터를 내려오는 동안 크고 작은 골짜기가 유입되면서 희석되었을 뿐이다.

지장천 자갈바닥에 나오면 아이들이 군락을 이루며 노란꽃을 피우고 있다. 삼척탄좌 아래쪽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산제비나비와 멧팔랑나비도 눈에 띈다.

함백산은 태백산과 이웃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산이다. 조선 중기에 나온 <산경표>에도 태백산 위쪽에 함백산(大林山)이 따로 있다. 다른 적멸보궁이 그렇듯이 정암사도 함백산 첩첩산중에 자리하고 있어서 형국이 좁다. 사방을 막은 산들로 경사가 만만찮아 대찰이 들어설 자리는 애당초 아니다.

정암사는 은대봉 남서사면과 중합백 북서사면이 만들어진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계곡에 따로 가진 이름이 없는 듯해서 '정암골'이라고 이름 붙여보았다. 이 정암골 계류가 정암사의 불-보살 공간을 상징적으로 양분하고 있다. 계류 오른쪽으로는 적멸보궁과 수마노탑이 자리하는 부처님의 공간이며, 왼쪽으로는 관음전과 삼성각 등이 있는 보살의 공간이다. 엄밀히 나누면 보궁과 탑은 중합백 계류이고, 보살공간은 은대봉 계류이다.

적멸보궁 구역으로 건너가는 극락교 아래로 정암골 계류가 흐르고 있다. 이 계류 일대가 천연기념물



삼척탄좌 폐광유출수로 붉게 물든 지장천

## 극락교 아래 계류는 1급수 냉수어종 열목어 서식지 보궁 처마 밑 산작약 적멸보궁에 어울리는 꽃공양

제73호인 열목어 서식지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두 뿔 쯤 되는 열목어가 눈에 띄었으나, 루사와 매미 태풍 때 큰물 때 떠내려가고 지금은 겨우 반 쯤 되는 작은 것들만 대어섯마리가 같겨니와 어울려 놀고 있다.

열목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1급수 냉수어종으로,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보호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암사가 열목어 남방한계지이다.

극락교를 건너면 주목을 만난다. 율사의 지팡이였다는 전설을 근거로 하면 수령이 1천5백년이나 된다. 전설에 걸맞게 원래의 나무는 죽어서 외피만 남아있고, 그 속에서 나무가 새로 자라나 풍화된 외피를 뚫고 나뭇가지로 기지개 퍼듯 양팔을 벌리고 있다. 더디 자라는 주목의 성품을 고려하면 새 나무라 해도 수령이 수백 년은 되었을지하다.

적멸보궁의 입지는 정암골과 지장천을 쌍계(雙溪)로 두고 있다. 옛 건축양식을 보전하고 있는 고색창연한

적멸보궁은 단청이 퇴색되어 마치 백백집 같다. 보궁 일곽에는 율사의 주목 외에 노거수급의 전나무, 달피나무, 신갈나무 등이 있다. 개회나무도 담장가에 서 있다.

보궁 처마 아래 산작약이 꽃을 피웠다. 산작약은 함백산 같은 깊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초본이다. 70센티 안팎의 키에 잎이 어긋나고, 잎자루가 긴 것은 작약과 비슷하다. 붉은 줄기 끝에 꽃이 하나씩 피는데, 반쯤 벌어진 꽃은 천하지 않은 요염을 풍긴다.

사람의 식생조경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산작약은 적멸보궁에 딱 어울리는 꽃공양이다. 하지만, 마당에 깔아놓은 외래종 꽃잔디는 적멸보궁의 품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리고 있다.

다시 극락교를 건너면 돌베나무 한 그루가 담장가에 서서 신부의 부케보다 더 눈부신 꽃들을 피우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니 노린재나무, 귀룽나무, 병꽃나무

들도 꽃을 피워 화답하고 있다. 다리 건너 수마노탑 가는 길은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기운이 있다. 눈맛이 좋은 전나무와 소나무와 잣나무들이 탑을 찾는 이들을 위해 사열하고 있다. 탑으로 오르는 지그재그 돌계단길 주변으로 박달나무를 비롯해 고로쇠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산철쭉, 노박덩굴, 국수나무 등이 보인다.

수마노탑은 율사가 당나라에서 문수대성으로부터 불점골 사리를 얻어와 봉안한 탑으로, 화강암 지대석 위에 9미터 높으로 세운 모전석탑이다. 전체 탑신을 이루고 있는 석재는 마노석이 아니라 회색색을 띤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에 의해 화학적 용해를 잘 일으키는데, 탑신과 지대석에 뿌연 게 흘러내린 흔적이 석회암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탑을 내려오면 정암사의 상수원 골짜기 쪽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사립문이 나 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갖가지 초본들이 때마침 꽃을 피우고 있다. 깊은 산간에서나 볼 수 있는 노루삼을 비롯해 쥐오줌풀, 원추리, 미나리냉이, 산괴불주머니, 여로, 양지꽃, 민들레, 고비 등이 보인다. 계류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산자락에 금낭화, 열매지, 종의무릇, 평의바람꽃, 처녀치마, 풀솨대, 구슬봉이, 발개덩굴, 동의나물, 연령초, 흙야비꽃대 등이 자라고 있다.

노루삼은 송그늘을 좋아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정암사 같은 산간 사찰에서나 볼 수 있다. 골계 선 줄기에 툭니 달린 잎은 어긋나게 달린다. 5~6월이면 하얀 꽃이 줄기 끝에 피는데, 여러 개의 실 모양을 한 것은 수술이며, 암술을 가운데 하나 밖에 없다. 정암사의 지표종 초본으로 삼을 만하다.

계류 주변에 쪽버들이 보인다. 쪽버들은 한국 원산으로, 도감에는 함백산보다 북쪽인 계방산 이북 산지의 계곡 주변에 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다. 높이는 20미터까지 자라고, 나뭇결집은 회갈색이며 세로로 갈라진다. 성장 속도가 빠른 속성수이다.

경내를 돌아보고 일주문 밖으로 나오면 지장천가에 서서 신부의 부케보다 더 눈부신 꽃들을 피우고 있다. 포장도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알려져 있다. **글·사진=김재일(생활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얼굴에 분칠 한 번 안 하셔도, 화려한 장신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셔도, 언제나 맑은 빛을 발하시는 단아한 모습처럼 스님의 시에는 그 어떤 치장도 보이지 않는다. 습작기 문하도들이 흔히 쓰는 시학 기법등의 기교도 없다. 오로지 정신, 활일의 경지에서 나오는 천상의 언어들만이 있을 뿐이다.

다 쓰고 난 후 갈고 다듬는 작업을 하시기보다는 무너져 예행연습 없이 글을 하여 중생의 한을 풀어주듯, 가슴속에 가득 담긴 불심의 언어들을 일괄휘저로 풀어내시는데 있다. 막힘없이, 물 흐르듯 읽히시!!

물질만능주의에 찌들고, 지쳐가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심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집을 꾸미게 되었다는 보덕스님, 지리산 함양에 위치한 건물사에 오늘도 한결같이 오가는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심보덕스님 저음  
신국판 양장본 / 119쪽 / 값 10,000원

판매처 055)962-3931 / Fax 055)962-3920 지리산 건물사(실상선원)

# 백련암에 청개구리

정심 보덕스님 詩集

천정무구의 부처님의 귀한 법문(백련)을 경청할때는 부처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중생되는 불자의 마음 자리(청개구리)를 시로 표현한 보덕스님의 명상시집.